

2024년  
12월 7일  
(토) 15시  
전국집중

## 한국 사회대전환! 세상을 바꾸는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 교육지

2024년 12월 2일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http://www.nodong.org) | 02-2670-910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다!

11월 9일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 16개 산업별 연맹은 사전대회를 열고, 본 대회 장소로 이동,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봉쇄를 뚫고 세종대로에 집결해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조법 개정을 거부해 노동현장을 파괴해온 정권이다.”며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완전진압복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앰블런

스로 후송됐고, 현직 국회의원마저도 갈비뼈 골절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고령 여성 조합원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9일 배치된 129개 부대 중 90%에 달하는 113개 부대가 완전진압복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이날 배치된 무장경찰은 올해 집회를 통틀어 최대 규모였다. 계획적인 ‘폭력 진압’이었던 것이다.

경찰의 폭력적인 대국민 ‘입틀막’,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종말의 신호탄이다.

###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박근혜-최순실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인가, 윤석열을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고 부르며 조종하는 김건희인가. 11월 7일 기자회견 사과조차 김건희가 시켜서 한다고 했다.

# 드러나는 공천개입, 국정농단!



최근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국정 농단 등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범법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마땅한 윤석열은 김건희 지키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고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며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권력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공범'임이 확인되었다. 2024년의 윤석열-김건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보다 더 심각하다.

2년 반도 너무 길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우리가 산다.

명태균의 입을 통해 윤-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공천 개입이 폭로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국정 농단이다.

스물다섯 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를 검찰만큼 충실한 종으로 만들었다. 결국 스웨덴 에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를 독재화 진행국가로 분류했다.

국민의 생명도 위기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아리셀 참사 등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다. 중대재해로 2023년엔 598명이, 올해 상반기에만 296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파병 추진, 무인기 사건, 북한 핵공격 발언,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전쟁 훈련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물가는 솟구치고 실질임금은 3년 연속 줄었다. 가계부채는 무려 1,900조에 육박했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라 구멍난 재정을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메우고 있다. 지방교부금을 삭감했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 같은 민생 복지 예산도 줄였다. 여기에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와 역사 왜곡까지 나라 망신 역시 끊이 없다.

2년 반은 너무 길다며 더 이상 윤석열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규가 전국에 가득하다. 3,000명이 훌쩍 넘는 대학의 교수·연구자에,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1,054명과 천주교 사제 1,466명까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최대 숫자다. 윤석열 퇴진의 불길이 전국에 활활 번져가고 있다.

**윤석열 퇴진,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 한국 사회대전환과 노동중심의 새 시대를 열자!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의 형태, 성별과 근로 시간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소득과 자산의 심각한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 둘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할 것 셋째,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것 넷째,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으로 진짜 사장과 교섭을 보장하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를 방지할 것.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중심의 핵심 가치이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 서열체제 폐지, 입시경쟁교육 해소 등 각 분야별로 한국 사회대전환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 1. 경제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 법인세 강화, 소득세·간접세 완화, 불로소득세 50%로 강화
- 사내하청제도 폐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협상권(슈퍼을) 보장
- 전국민 고용보험, 생활임금 보장
-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협상권 보장

## 2.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산업 전환

- 기업과 자본의 탄소 저감 강제(RE100)
- 화석에너지를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전환
- 정의로운 산업전환

## 3.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4.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 대통령,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 광역·기초의원 중선거구제
- 성평등한 권력구조(동수 내각, 동수 의회)
-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5. 식량주권 실현, 농수산물 가격 보장

-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 국가책임 농정실현, 식량주권 법제화
-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공정가격 실현

## 6.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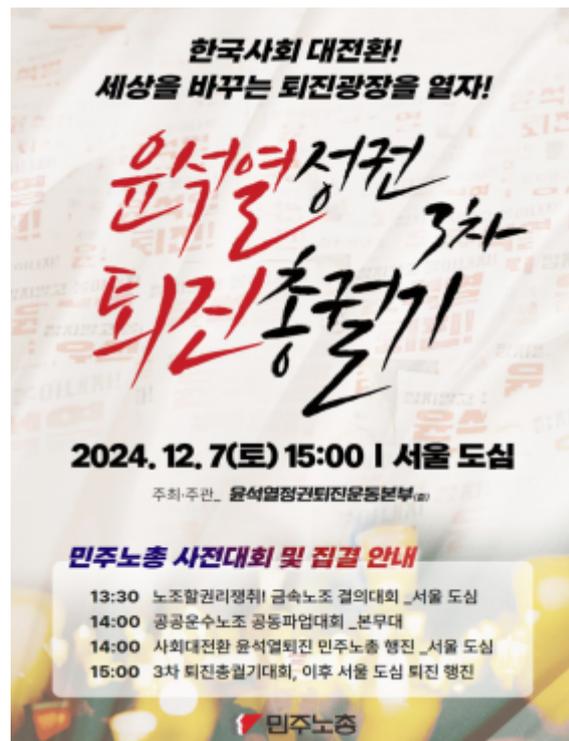
## 7.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역사 정의와 주권 실현

- 65조나 되는 군사비를 줄여 사회안전망과 민생 예산 대폭 확대
-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기 도입 중단

- 한반도 군사 위기 고조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고 국가보안법 폐기

등이다. 노동자, 민중의 세상이 윤석열 퇴진만으로 열릴까.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면 노동자, 민중의 세상이 올 것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열지 않으면 되돌아간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등장으로부터 얻은 뼈아픈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퇴진,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국 사회대전환과 노동중심의 새 시대, 우리 손으로 열자!



## 총궐기 참가 지침

- 교육지, 카드뉴스, 영상 등 사전 교양 진행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가, 지인에게 권유
- 장갑, 귀마개, 마스크, 깔개 등 추위 대비